# 구로오늘신문



판촉물 특판
02)2068-2511
010-9035-5819
현수막·트로피·타올

극동칼라
02 -855-1484
취업사진 여권 증명사진
가족사진 복원사진
디카 핸드폰사진 즉시가능!



제854호 〔주간〕 〈1994년 10월 5일 창간〉 2020년 11월 30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 구로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27일 개회

## 새해예산안 7,392억 집중 심의

### 12월16일까지 20일간 구정질문·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27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392억원의 2021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또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인다.

또 12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마지막날인 16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2면으로 계속〉 〈채홍길 기자〉

**"코로나19 조기 종식, 온누리에 축복을" 구청앞 '성탄 트리 점등'**

구로구청 광장앞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됐다.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이춘복 구로구 교구협의회장, 권임석 구로구청 기독교 신우회장 등 교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 대형 '성탄 트리'에는 전구가 모두 7만6천여개가 사용됐다. 내년 1월 20일까지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구로구 구석구석 모든 가정에 축복을 기원하는 빛을 밝히게 된다. 한편 점등식 직전 구청 신관 7층 구내식당에서 김수정 목사의 사회로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거행했다. 〈채홍길 기자〉


Daum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kabc.or.kr


##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 24일부터 연말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 시내버스-지하철 야간 단축 운행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별도 공표 때까지 계속된다. 도심 집회와 시위, 연말 모임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다.

서울시는 수능 전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 10대 시설을 추려 '서울형 정밀방역'에 나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발맞춰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 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면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단축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한 뒤 27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시는 비상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11시로 1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안전한 수능과 대입시험이 치러지도록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시험 당일엔 수험생 확진자들도 빠짐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2곳에 10개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한다.

또 자가 격리 대상 수험생을 위해서도 22곳의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고, 자차이동이 불가한 수험생은 119 구급차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한다. 〈김유권 기자〉

# 구로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27일 개회

〈1면에서 계속〉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의원) ▲서울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의원) 2건의 결의안과 ▲서울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향 의원) ▲서울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여 의원) ▲서울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자 의원) ▲서울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서울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재만 의원) ▲서울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구로구의회가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청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서울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26건도 처리한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의회 '느린학습자 지원 실천 공론장' 개최

지난 24일 구로구의회 위원회실에서 구로지역 느린학습자 지원 실천 공론장이 열렸다. 구로구의회는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어서 법적 보호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론장을 마련했다.

지난 24일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위원회실에서 구로지역 느린학습자 지원 실천 공론장이 열렸다.

구로구의회에서는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어서 법적 보호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의 지원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이번 공론장을 마련했다.

공론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소규모 인원으로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행사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공론장에는 박동웅 의장을 비롯한 최숙자, 김희서, 정형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공동주최자인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구로구 부모커뮤니티 '하랑'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희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론장은 기관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활동보고와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 연구 조사' 보고, 구로구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발표 후에는 다양한 분야 참여자들의 자유롭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동웅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이 학교에서 뿐 아니라 당당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로구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서 의원은 "이번 공론장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느린학습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 서울시립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 내년 11월 오류동에 들어선다

### 김인제 시의원 밝혀

서울시가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점형우리동네 키움센터가 구로구 오류동에 들어선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최근 "거점형 키움센터는 내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며 놀 수 있는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체험형 놀이를 통해 초등돌봄을 책임지고 지역 돌봄 시설들의 허브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2년 까지 400개소의 키움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거점형 키움센터는 중소형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4호로 선정된 오류동은 구로관내 초등학교 26개소, 일반형 키움센터 8개소, 융합형 키움센터 1개소, 지역아동센터 24개소가 있어 센터별 기능을 지원할 컨트럴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시설 규모는 아동 1인당 7㎡로 선진국 수준의 공간을 확보하고 아동주도의 실내놀이, 체육,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특징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로구에는 신도림동, 구로 1·2·3·5동, 고척1·2동, 개봉3동, 천왕동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9개소가 운영되고있다.

김 의원은 "키움센터 설치를 통해 초등돌봄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 지고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진행상황을 세세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조미향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 사무총장 선출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회운영위원장(사진·신도림동, 구로5동)이 지난 6일 중구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자치구 간 정보와 모범사례 및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다.

조미향 위원장은 "월례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치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상호간 정보와 의정활동 노하우를 교류하는 가교 역할로서 책임을 다하겠으며,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25개 자치구 의회의 협치를 실현하고, 구민이 바라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접수

구로구가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 접수 대상은 지급 제외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대표자 국외체류·사망·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의 사유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다.

또한 실제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업종으로 확인돼 1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지급 신청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를 이용하면 된다. 구로구 현장접수센터 2620-7448~9로 문의하면 된다. 〈한만수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 행 인 : 김유권
주간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구 독 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 ‘코로나 극복, 균형 발전, 스마트산업, 녹색도시, 복지·안전 구로’로

## 이성 구청장, 구로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施政연설(요지)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구로구민들에게 무척이나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로 기업이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최초로 ‘해고없는 도시 구로’를 선포하고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로 주민과 약속한 스마트산업도시, 지역균형발전도시, 교육문화도시, 녹색도시, 복지·안전도시 구로를 위한 주요 사업들을 통해 구로의 미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공약 실천도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11년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수상을 희망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이루어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는 11년 연속 수상과 서울시 자치구 유일 2년 연속 최우수상 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사업과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54개 사업 250억원의 국·시비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 정책목표인 균형발전, 교육·문화, 스마트산업, 녹색도시, 복지·안전을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균형 발전도시 구로」를 실현하여 도시의 가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재조사시 KDI에 사업성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행정지원을 통해 차량기지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를 공동주택, 공원, 대규모 지하주차장, 행정타운 등 주거·상업·행정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개봉1동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 사성교 확장,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확장, 연동로 확장, 고산초교·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을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에 청년주택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고, 구로2동 저층주거지에 진행하는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항동에는 주민편의시설과 주민센터를 포함한 복합행정센터를 2022년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로5동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S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공사중인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도시 구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습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도 160억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투입해 탄탄한 교육기반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고척돔구장 지하 유휴부지에 복합 문화인프라 시설인 서울책보고 2호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림역 인근 구로동 1-4 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개봉1동 돌봄특화 도서관,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항동지역 도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구로 G페스티벌, 국제어린이영화제, 구로책축제를 온·오프라인 구민참여 행사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셋째「일자리 많은 스마트산업도시 구로」만들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1만3천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전반에 경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민선 7기 임기 내 5만3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토털 플랫폼 ‘청년이룸’ 운영을 통해 맞춤형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4차산업 취업 역량 강화 공간을 만들어 청년 구직자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플랫폼을 제공하겠습니다.

‘해고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G밸리에는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구로디지털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고척근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모바일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하여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넷째「체육·휴식공간이 풍부한 녹색도시 구로」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천에 1만 제곱미터 규모의 녹화사업을 추가 시행하여 안양천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생태초화원과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수목원 수준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상부공간 유휴부지에는 주민을 위한 공원과 친환경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항골과 천왕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천왕근린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오류동, 온수동 지역에 무허가 건물들로 훼손된 공원용지는 온수근린공원으로 복구하여 녹색 생태계를 되살리겠습니다.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복합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내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과 고척동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신구로유수지에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유례없이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우리구 세출 예산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7,392억원으로, 올해보다 399억원, 약 5.7% 증가하고, 이중 사회복지비가 4,136억원으로 292억원 증가하여 56%를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는 0.3% 증가한 22.5%입니다. 일반회계가 5.9% 증가한 7,2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5% 감소한 111억원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요인을 반영한 재산세 증액편성 등으로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 증액규모는 약 10억원으로 2020년도 증액분 177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이며, 증가하는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 법정경비와 경직성 경비 부담 및 코로나19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많은 고민과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3,844억원보다 7.6% 증가한 4,13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비 증가로 전년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분야 예산이 금년도 59억에서 66억원으로 11.9% 증가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도 134억원보다 21.5% 늘어난 16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과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비 반영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156억원보다 18.2% 증가한 185억원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병 예방사업 증액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증액 등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184억원보다 1.6% 늘어난 187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도림천 보행로 정비 등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CCTV 조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 용역 등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금년도 388억원보다 0.6% 감소한 385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 증액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감소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229억원보다 5.2% 감소한 217억원으로, 프랑스문화축제 미편성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행사성 사업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도 227억원보다 13.3% 감소한 197억원으로 오류초교 및 오류시장주변 도로개설,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금년도 41억원보다 47.7% 감소한 22억원으로, 예산액 중 해고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는 12억원 증가하였으나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투자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도 1,277억원에서 4.3% 증가한 1,332억원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은 지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한 45개 사업 18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채홍길 기자〉

## 새해 예산안 금년 대비 5.7% 증가 7,392억
## 사회복지 7.6% 늘어난 4,136억, 56% 차지
##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대, 복지 지원 편성”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시작

## 25일 온도탑 제막식… 내년 2월15일까지 총 9억1천만원 목표

구로구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지난 25일 오후 2시 구청앞 광장에서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김한기 구로히어로즈 클럽 회장,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각계 인사와 사회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속에 조촐하게 거행됐다.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지난 25일 오후 2시 구청앞 광장에서 각계 인사와 사회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속에 조촐하게 거행됐다.

복지정책과 서혜경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 전달식, 사랑의 열매 전달식, 선물꾸러미 전달식, 온도탑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겨울 실시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올해 총 모금액 9억1천만원을 목표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힘을 모아 내년 2월15일까지 모금 운동을 펼친다.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우리은행 015-176590-13-520 (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지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구청 복지정책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쌀, 김치, 이불, 의류 등 각종 물품도 기부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금 활동을 통해 접수된 성금과 성품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 등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한 인사는 위에 언급한 인사 외에 구로구의회 조미향 운영위원장,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 노경숙 안전관리특위위원장, 박칠성 의원(전반기 의장) 김철수, 이명숙 의원과 오승주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상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완권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정희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이용안 기업인연합회장, 이계우 KIBA서울 경영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채홍길 기자〉

###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은빛봉사단

# 저소득층 210명에 ‘김장 나눔’ 봉사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는 13일 오전 강당에서 괴산에서 절임배추 20kg 100박스를 구입, 지회 은빛봉사단 30여명과 직원들이 참석해 김장을 담가 김치 10kg씩을 박스에 담아 관내 저소득층 및 홀몸어르신 210명에게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지회장 전영수)는 지난 11월13일 오전 10시 지회 강당에서 구로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충북 괴산에서 절임배추 20kg 100박스를 구입해 지회소속 은빛봉사단 30여명과 직원들이 참가해 김장을 담가 김장김치 10kg씩을 박스에 담아 관내 저소득층 및 홀몸어르신 210명에게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전영수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장,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조미향 운영위원장,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 박칠성 의원(전반기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은빛봉사단 어르신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통해 어른다운 노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채홍길 기자〉

### 고대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심재정 교수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고대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심재정 교수(사진)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953년에 창립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회로, 심 교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간행위원, 학술위원, 총무이사, 대외협력 이사, 중증호흡기감염병연구회 회장 등을 두루 지내며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인정받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심재정 교수는 “해외 호흡기학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국내 유관학회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회지의 국제 학술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만성기침, 기도질환, 폐암 분야에서 명의로 손꼽히고 있는 심 교수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초기 실무책임자로서 국내 결핵 관리 및 퇴치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병원기반형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사업의 사업책임자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도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유권 기자〉

# 고대 구로병원 박일호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고대 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박일호 교수(사진)가 지난 11월 20일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13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일호 교수는 국내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평가 기술개발과 임상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떠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관련 일을 수행해왔다”며 “이번 표창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의료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 만추(晩秋) 사랑도 익어가는 '구로'

## 카펫, 연탄, 성금 · 성품, 장학금, 밑반찬 등 기부 이어져

늦은 가을! 구로구의 사랑도 익어간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겨울나기를 대비한 카펫, 연탄 등 방한용품 기부가 이어졌다.

지난 19일 신도림자원봉사협력단(단장 하숙현)이 주최하고 ㈜만나플래닛(대표 조양현)이 후원한 사랑의 카펫나눔 행사가 신도림동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취약계층 70명에게 카펫이 전달됐다.

13일에는 오류2동 자원봉사자 15명이 연탄 총 1,500장을 4가구에 전했다. 주민 목희수씨가 후원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했다.

7일 구로고등학교 2기 동문회(회장 김성원)도 연탄 1,200장을 지원했다.

성금과 성품 기부도 계속됐다.

18일 고척2동 삼대족발 고척점(대표 장영미)이 백미 10kg 30포를 전달했다. 16일 송정주류(대표 김종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100포를 기부했다. 같은 날 ㈜이레에이치앤씨(대표 나상길, 이병훈)와 정원씨엔씨(주)(대표 이은철)는 KF94 마스크 8,000매를 기증했다.

수궁동 장학회(회장 동귀원)는 11일 관내 초등학생 3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3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오류1동 새마을금고(이사장 민혁근)는 지난달 20일 오류1동, 27일 수궁동 어르신 경로행사에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음식나눔도 잇따랐다.

늦가을 구로구의 사랑도 익어간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겨울나기를 대비한 카펫, 연탄 등 방한용품 기부가 이어졌다. 송정주류 김종은 대표(왼쪽)가 지난 16일 이성 구청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수궁동 나눔이웃 동아리 '사랑의 손길'이 이달 12일 호박죽과 물김치를 직접 만들어 목도리, 마스크 분실방지 끈과 함께 홀몸어르신 20명에게 전달했다.

9일 고척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숙)는 왕뼈해장국(대표 박상수)과 오아시스사우나(대표 오훈)의 후원을 받아 홀몸어르신 30명에게 감자탕을 대접하고 목욕 이용권도 배부했다.

지난달 30일 구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차정희)는 하누리매운명품양푼갈비찜(대표 이성희) 후원으로 저소득 어르신 50명에게 설렁탕과 반찬을 전했다.

고척2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이부영)는 홀몸어르신 70명에 밑반찬,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했다.

오류1동 나눔가게들은 릴레이 나눔활동을 펼쳤다. 여민락(대표 유재숙), 연경당(대표 김효성), 전주돌밥추어탕(대표 이강순), 하나미(대표 김보성), 소우주(대표 박지호) 등이 저소득 가구에 밑반찬, 추어탕, 돈가스 등을 후원했다.

이외에도 개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황규태), 오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인태), 신도림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옥), 고척2동 자원봉사협력단(단장 윤호)도 밑반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채홍길 기자〉

## 유희상의 열린 칼럼

### 흑백논리의 오류 ㊦

흑백논리의 핵심은 자기 주관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대학교에 가야 할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공부를 안하고 소설책만 본다면 불량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흑백논리의 오류이다. 고등학생이 부모가 원하는 데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소설을 열심히 읽은 끝에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는 복잡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흑백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작 서글픈 것은 본인이 오류를 범하고 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식으로 배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진리와 가치는 다양하다. 상대방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곧 진리 인 것이다. 길에서 구르는 돌이지만, 그 사람이 옥석(玉石)이라고 생각하면 옥석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 나(自我)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흑백논리의 오류는 세상에서 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관념이다. 모순 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삶은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 이치는 간단하다. 내가 원하는 데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 공연한 것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면 세상이 힘들 수 밖에 없다.

〈본지 회장〉

# 강남리즈, 녹색장터 수익금 '김장김치 나눔' 실천

## 봉사단선 구로리공원 등 환경정화 활동도 벌여

구로4동 강남리즈 성형외과 피부과는 지난 21일 강남리즈 주차장에서 강남리즈 자원봉사단이 주최한 3차 '자원순환 나눔실천 알뜰녹색장터를 개최했다.

강남리즈 봉사단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림역 주변과 구로4동, 구로리어린이공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벌였다.

구로4동 소재 강남리즈(의료생활협동조합 · 이사장 유광순)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지난 11월 21일 강남리즈(생협) 주차장에서 강남리즈 자원봉사단(단장 김종우 · 총무 이송윤)이 주최한 2020년도 3차 '자원순환 나눔실천 알뜰녹색장터를 개최했다.

이날 알뜰녹색장터는 자원봉사단 회원들이 기증한 헌옷가지와 미숫가루 · 참기름 · 미역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이회'(회장 박용문)에서 김장김치를 담가 구로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봉사단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림역 주변과 구로4동, 구로리어린이공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3월부터 쉬었던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지난 9월부터 재개했다.

녹색장터는 지난해에는 연간 5회 이상 실시하여 그동안 모은 700여만원의 수익금으로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을 실시한 것이다.

2020년 올 해는 알뜰바자회를 세차례 열어 수익금으로 이사회를 거쳐 '불이회'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 제중요양병원, 직원들과 함께 한 '코로나19 오행시' 눈길

제중의료복지재단 제중요양병원은 병원관계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오행시' 이벤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제중의료복지재단 제중요양병원(이하 제중요양병원)은 병원관계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오행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11일까지 실시한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병원 종사자로서 생활방역에 전념하여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투표한 후 등위 선발을 통해 최종 수상자 1~3등에게 소정의 상품권이 증정됐다.

제중요양병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었고, 아울러 직원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제중의료복지재단의 이봉 이사장은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모두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병원 종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010-9096-1144

# ‘스마트 돌봄플러그’ 설치 고독死 예방

## 중장년 1인가구 등 222세대 … IoT 활용 전력량·조도 측정·전송
## 측정값 변화 없으면 위험알림 문자 발송, 안부 확인-예방 조치

구로구가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코로나19로 방문 복지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며 “이에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설치해 위험 상황을 예방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스마트 돌봄플러그는 대상자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조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는 기기다. 전기콘센트에 멀티탭처럼 꽂은 뒤 TV 등 가전제품의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구로구가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을 펼치고있다.

구로구는 각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 고시원 거주자 등 총 222세대를 선정했고 이달 중 돌봄플러그를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각 세대에 설치된 돌봄플러그는 대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고위험군 24시간, 위험군 36시간, 일반군 50시간으로 알림주기가 설정돼 있고, 해당 시간 동안 측정값에 변화가 없으면 복지플래너에게 위험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위험알림을 받은 복지플래너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의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국민행복IT경진대회’ 총리상·은상 수상

## 79세 문병기씨 국무총리상

구로구가 ‘2020년 국민행복IT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1명, 은상 1명을 배출했다. 수상자들은 구로구 구민정보화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구민이다.

‘국민행복IT경진대회’는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다.

지난 12일 개최된 이번 대회 본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7개 시도별 거점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예선을 거친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의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다.

구로구는 3명이 참가해 2명이 수상했다. 문병기씨(79·남)가 고령층 1부문(75세 이상)에서 국무총리상을, 김목곤씨(56·남)가 장년층 부문(55~64세)에서 은상을 받았다.

구로구는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구로구청, 구로2·4동, 고척1동과 구로문화원 2곳 등 총 6곳에서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다문화가정 대상 무료 볼링 프로그램 운영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 중인 항동생활체육관은 지난 18일 관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볼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이 위탁운영 중인 항동생활체육관은 지난 11월 18일, 관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볼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무료 볼링 프로그램은 관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됐으며, 다문화와 청소년교육에 대한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정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코로나19에 대비한 발열체크 및 방문대장 작성, 전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아래 안전하게 진행됐다.

공단 유영환이사장은 “다문화 가정에 생활체육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내·외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생활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다문화 포용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 학교앞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 신도림초등교 ‘스마트 횡단보도’ 신설
## 과속·정지선 위반 차량 ‘전광판 송출’ 경고

구로구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신도림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구로구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한다.

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신도림초등학교 인근 도로(신도림동 316-6)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신설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주변 도로에는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정지선 위반 계도시스템’이 작동된다. 과속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즉각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의 모습을 전광판으로 송출한다. 평소에는 현재 주행속도를 측정, 표시해 정속 주행을 유도한다.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음성안내 장치도 설치돼 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를 이탈하는 경우 경고 음성을 송출한다.

구로구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LED 바닥신호등’도 조성했다. LED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바닥에 표출해 보행자들이 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양 옆 바닥에 ‘활주로형 조명’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집중조명’도 신설했다.

구 관계자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개봉초, 개명초 등 초등학교 13곳에는 구로형 어린이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는 보행 대기시설인 ‘옐로카펫’(34곳)과 ‘노란발자국’(10곳)을 설치하고 과속·신호단속카메라(34곳)도 신설했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도 정비하고 있다. 〈한만수 기자〉

#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 선정

## 단체 회원가입, 기관장 관심도 만점
## 올해 인센티브 총 3,100만원 받아

구로구가 2020년 하반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상·하반기 최우수구 수상으로 올해 총 3,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에코마일리지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했다. 회원가입, 회원정보 정비, 기관장 관심도, 홍보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구로구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단체 회원 가입과 기관장 관심도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구로구는 에코마일리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대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동주민센터, 통장, 직능단체,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신규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아파트 에코마일리지 부스 운영, 안양천 방문객 대상 홍보 등의 야외 활동을 펼쳤다.

김정웅 환경과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챙기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여전

## 일주일새 22명 증가… 26일 현재 252명

### 209명 완치 퇴원-43명 치료중

전국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 관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이후 일주일 사이 22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252명으로 늘었다. 26일 현재 209명이 완치 퇴원하고 43명이 치료중이다.

더구나 지난 24일부터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 하루에 3~4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관내 249번 확진자(구로3동)는 해외 입국자로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한 뒤 25일 오전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오후 양성 판명됐다.

246번 확진자(구로5동)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24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5일 양성 판명됐다.

247번 확진자(개봉3동)는 타 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24일 영등포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25일 양성 확진됐다.

248번 확진자(개봉1동)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수강생으로 강서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252명으로 치료중 43명, 완치자 209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 300명, 해외입국자 259명 등 모두 559명, 능동감시대상자 1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구 접촉 85명, 해외 입국 5명, 기타 7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26일 현재 모두 8,113명으로 구청별로 보면 ▲송파구가 제일많은 574명 ▲관악구 513명으로 2개구가 500명을 넘어섰고 ▲강서구 484명▲강남구 473명 ▲성북구 439명 ▲노원구 427명 ▲서초구 418명 으로 5개구가 400명을 넘어섰다. 또 ▲동작구 360명 ▲은평구 339명으로 2개구가 300명을 넘어섰다. ▲도봉구 297명 ▲동대문구 290명 ▲영등포구 274명 ▲마포구 265명 ▲강동구 261명 ▲중랑구 256명 ▲구로구 252명 ▲양천구 251명 ▲서대문구 229명 ▲성동구 211명 ▲용산구 204명으로 11개구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어 ▲강북구 185명 ▲광진구 170명 ▲종로구 118명 ▲금천구 108명 ▲중구 102명으로 5개구가 100명선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꿈을 잇다' 전시회 개최

## 12월 13일까지 다목적홀 A, B홀서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이 오는 12월 13일까지 '꿈을 잇다' 전시회를 다목적홀 A, B홀에서 개최한다.

'꿈을 잇다'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이 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표현한 전시회다. 김진, 떼글떼글, HUBSPACE, Jeonghwa Fx 등 4팀이 참여해 사진, 일러스트, 미디어아트, 특수분장 조소, 전각 등의 작품들을 마련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이 오는 12월 13일까지 '꿈을 잇다' 전시회를 다목적홀 A, B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시장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작품을 감상하는 '윈도우 갤러리'로 운영된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작품 소개 영상도 제공된다.

전시회는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문의)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867-2202. 〈한만수기자〉

# 구로소방서 올해 화재출동 모두 565건

## 인명 사망 4명·부상 13명·재산피해 6억5천만원

### 구조 6,758건-구급 28,501건 출동

구로소방서(서장 권오덕)는 2020년 10월말 현재 화재 출동은 하루 평균 1.86건인 총 565건이다. 지난해 2019년 1년동안 화재 출동은 813건이었다. 이 수치는 서울시 화재발생 건수 총 5,766건의 6.6%다.

올해 10개월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17명이다. 이 중 사망 4명, 부상 13명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6억5천2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만 11명이다. 재산피해는 10억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센터별 출동현황을 보면 구조 출동은 6,758건이며 구급은 28,501건이다. 구조 출동은 화재 2,081건, 교통 관련 240건, 문개방 633건, 승강기 414건, 생활안전 관련 2,174건, 벌집 제거 261건, 기타 955건이다.

구급관련 출동을 보면 28,501건 중 급만성질환 관련 11,490건, 낙상-추락 2,240건, 교통사고 1,499건, 기타사고로 1,515건 등 모두 1만6천490명을 이송했다.

〈채홍길 기자〉

# 티뷰크재단, 구로종합사회복지관도 수탁 운영

구로3동의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기관으로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이 선정됐다.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구로구청 3층 창의홀에서 회의를 열고 사회복지법인 티뷰크사회복지재단(대표 이선옥)을 선정했다.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은 구로관내 종합복지관 3곳 중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탁운영중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2곳을 운영하게 됐다.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0년동안 불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서 위탁운영해 왔다.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동안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게 된다. 〈김유권 기자〉

# 2021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참여자 모집

## 만 18세 이상 250명…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로구가 2021년 상반기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참여자 2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인 자다.

참여자는 내년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생활방역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만 65세 미만은 주 5일 하루 5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11월 27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참조하면 된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52, 2057. 〈김유권 기자〉

#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35명 모집

구로구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135명이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며,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임금은 1일 4만2,840원, 만근 시 98만5,320원(보험료 공제액 포함)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12월 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 33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102명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뽑는다.

선발결과는 12월 17일 오후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구청,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홍길 기자〉

#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한국열린사이버대와 손 잡아

## 입학금 면제, 수업료 30% 감면 등 '업무협약' 체결

구로구가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손을 잡았다.

구로구는 "주민들에게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로구민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면제와 매 학기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적용 받게 됐다. 장애인의 경우 수업료를 50% 감면받고 태블릿 PC도 무상 지원받는다.

양 기관은 이달 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교로 5,4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실용영어학과 등 10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만수 기자〉

# 한국문인협회 제57회 한국문학상 수상자 발표

## 제36회 윤동주문학상·제39회 조연현문학상도 선정

### 12월16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서 시상식

사진 윗쪽 왼쪽부터 제57회 한국문학상 수상자 구재기 시인, 도광의 시인, 이광석 시인, 강준희 소설가, 문삼석 아동문학가. (아래쪽 왼쪽부터) 제36회 윤동주문학상 수상자 김영 시인, 진순분 시조시인. 제39회 조연현문학상 수상자 김성달 소설가, 장호병 수필가, 윤삼현 아동문학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는 최근 제57회 한국문학상, 제36회 윤동주문학상, 제39회 조연현문학상 수상자를 결정 발표했다.

이 문학상들은 한국문인협회가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오는 12월 16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아뜨리움홀)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문학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수상작).

◇ **제57회 한국문학상**

▲구재기 시인(시집 '모시올 사이로 바람이') ▲도광의 시인(시집 '무학산을 보며') ▲이광석 시인(시집 '바람의 기억') ▲강준희 소설가(대하소설 '촌놈' 전5권) ▲문삼석 아동문학가(동시 '물고기 눈에는')

◇ **제36회 윤동주문학상**

▲김영 시인(시집 '파이디아') ▲진순분 시조시인(시조집 '익명의 첫 숨')

◇ **제39회 조연현문학상**

▲김성달 소설가(평론집 '한국소설을 읽다') ▲장호병 수필가(수필집 '눈부처') ▲윤삼현 아동문학가(동시집 '지구본 택배')

〈한만수 기자〉

초대시

## 머리를 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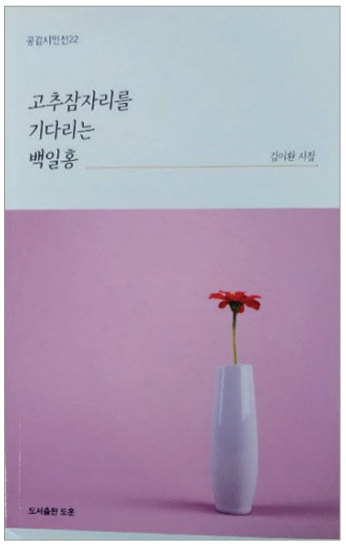
시인 양 소 연

버릴 수 없었던
사연들을 떨쳐 버릴까
공들여 기른 머리
짧게 자른 아침

잡념도 걱정도
한 움큼 잘려나간 듯
소복이 제 발등에
떨군 잎 바라보는
은행나무 옆에 선다

- 국민대대학원 상담심리학전공
- 현재 중학교 교장 재직
- 2004년 글샘창단 동인
- 다시올문학 신인상 수상.

# 김이환 첫 시집 '고추잠자리를 기다리는 백일홍' 출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김이환 시인이 지난 최근 첫 시집 '고추잠자리를 기다리는 백일홍'을 출간했다.

시집 '고추잠자리를 기다리는 백일홍'에는 1부 구월의 노래, 2부 고추잠자리, 3부 어느 시인이야기, 4부 비워야 채워진다 등 주옥같은 시 61편과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김이환 시인의 시들은 외로움과 고독이 묻어 있다. 그 외로움을 자연의 사물에서 건져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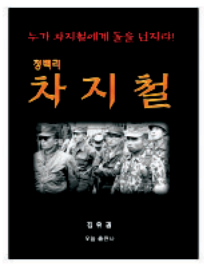
그는 시집에 실린 유수진 시인과의 인터뷰에서 "시집을 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2019년 1월 어느 아침에 아침 불연 듯 시상이 떠올라 시를 쓰기 시작했다"면서 "첫 작품은 '어디로 가고 있나'였다"고 말했다.

"소소한 일상을 담은 진솔한 시를 쓰고 싶다"는 김이환 시인은 42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대전보문고와 중앙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신문대학원과 성균관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아남그룹 기조실장과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과 한국PR협회장을 지내는 등 지난 50년간 광고와 홍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광고업계의 산증인이다.

한국시인협회장인 나태주 시인은 서평을 통해 "시는 정제된 언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김 시인의 시들이 그렇다"면서 "김 시인의 시에는 자연에 대한 살가운 눈길이 있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있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도훈. 128쪽. 1만원.

〈김유권 기자〉




**정백리 차 지 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라!

김유권 지음
문학/사륙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